

# mécén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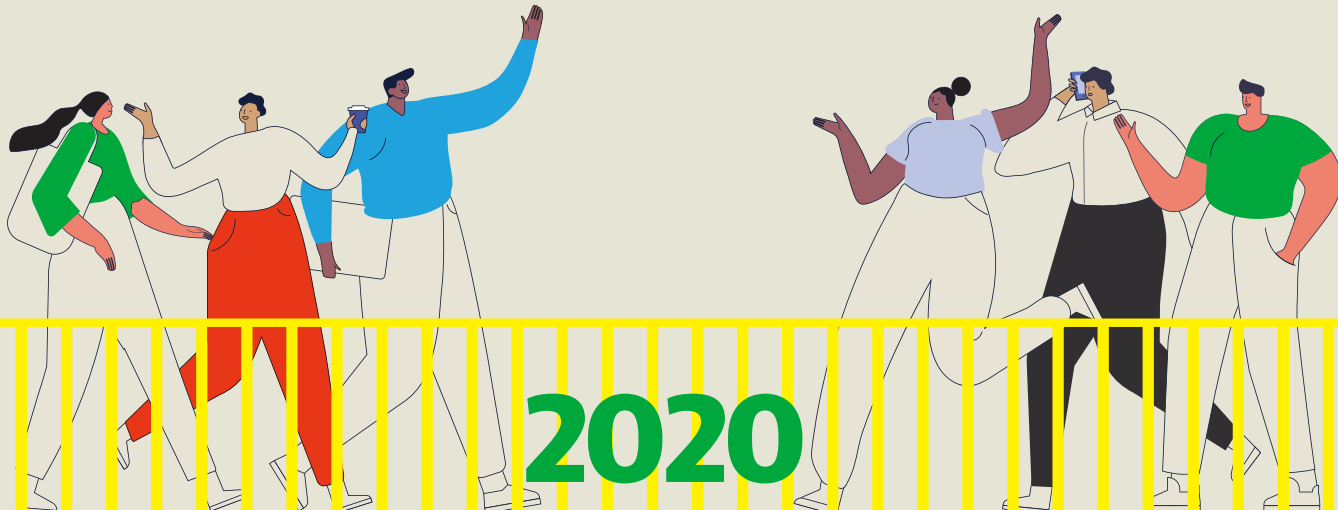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20 SPRING VOL. 110



SPECIAL ISSUE

- 코로나 이후 예술의 꿈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 2020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안내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를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올해 14년째를 맞이했으며, 3월부터 2020년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 START '2020 예술지원 매칭펀드'

### 신청 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내 [매칭펀드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기간** 2020년 3월 9일(월) - 펀드 소진 시까지
- 심사일정** 4월 둘째 주에 1차 심사 예정  
▶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진행  
▶ 이후 펀드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진행

### 신청 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가능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단체

### 제출 서류

- 기업** 온라인상의 지원신청서 1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1부, 손익계산서 1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조건부기부신청서 1부, (현물기부의 경우)장부가액 확인서 1부
- 예술단체** 온라인상의 지원신청서 1부 (신청 프로그램 및 단체 소개자료 추가첨부 가능)

### 심사 기준

- 기업**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지원 가능 여부 등
- 예술단체** 신청 프로젝트의 작품성 및 실현가능성, 기업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충실도, 사회기여프로그램의 시행 정도 등

### 지원 규모

기업 규모	매칭비율 (펀드 : 기업)	기업지원금	펀드교부금
중소기업	1 : 1	최소 500만 원 ~ 상한선 없음	최소 500만 원
중견기업	1 : 2	최소 1,000만 원 ~ 상한선 없음	~ 최대 2,000만 원

▶ '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펀드교부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유의 사항

- 1) 1개 기업이 최대 2개 예술단체 지원 가능
- 2) 타 공공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지역 메세나 기관 등)을 받고 있는 지원 프로젝트일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문의

한국메세나협회 A&B팀 진보미 / 02-784-0952 / bom@mecenat.or.kr

# contents

2020 SPRING VOL. 110

메세나 통권 110호  
발행일 2020년 3월 16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홈페이지  
[www.mecenat.or.kr](http://www.mecena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http://www.facebook.com/mecenat.korea)

## SPECIAL ISSUE

- 04 **팝업이슈 1**  
코로나 이후 예술의 꿈
- 08 **팝업이슈 2**  
함께 힘내요! 문화예술계를 응원합니다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無청중 공연 진행
- 10 **현장 리포트 1**  
문화예술 힘으로 여는 아이들의 미래  
GS칼텍스 '마음톡톡'
- 14 **현장 리포트 2**  
예술 품은 착한 여행의 선순환  
하나투어 'COA프로젝트'
- 16 **현장 리포트 3**  
클래식 음악 대중화의 꿈  
현대약품 '아트엠콘서트'





## 메세나 포커스

18	<b>문화예술 포커스</b>	예술인이 예술로 빛나는 삶	2020 확대되는 예술인 복지 정책
22	<b>예술 in law</b>	지키는 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와 사망
24	<b>메세나 갤러리</b>	이탈리아 디자인의 거장	카스틸리오니 展
28	<b>사람과 공간</b>	스물의 열정, 예술의 봄 꽃 피우다	LG아트센터 심우섭 대표
32	<b>얼리버드 페스티벌</b>	100년 축제의 정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 문화 CSR

34	<b>기업·예술 파트너십</b>	광화문 기쁨 담은 클래식 무대	현대해상 & (씨더블어배움 <광화문 음악회>
35	<b>회원사 뉴스</b>	2020 한미사진아카데미	

## 함께하는 메세나

36	<b>예술 살롱</b>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배찬효 사진전 <서양의 눈 Occident's Eye>
38	<b>문화 캘린더</b>	
40	<b>회원사 소개</b>	



작품\_〈자유로운 질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46x46cm, 2017년

작가의 작업에는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지닌 개체가 각자의 존재를 나타내며 '질서'를 이루고 있다. 캔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각기 다른 색, 다른 형태, 다른 질감을 지닌 채 서로 어우러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며 색채의 어울림과 아름다움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면에 자리 잡은 색·면과 드리핑 한 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상징한다. 때로는 갈등하며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지만 결국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개성을 유지한 집합체가 되는 우리 삶의 연장선상에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다.

### 작가\_한영숙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학(회화) 석사 과정을 마친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전국대학미술대전 등 다수 입상 경력이 있다. <2019 SCAF 아트페어(롯데호텔 본점)>, <2017 서울아트쇼(코엑스)>, <2016 KPAM미술제(예술의전당)> 등 활발한 작품 및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간 <메세나>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팝업 이슈

글. 조상인(서울경제 기자)

# 코로나 이후 예술의 꿈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지 못한 먹구름이 드리웠다. 지난해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세계 곳곳을 파고들며 사회 생태계를 마비시키고 있다.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01



01  
박고석의 1951년작 '범일동  
풍경' ©국립현대미술관

02  
안드레아 만테냐가 1480년에  
그린 '성 세바스티아누스'  
©루브르박물관

## 공공 얼어붙은 문화예술계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아시아 최대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홍콩(Art Basel HK)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미술 장르를 접었다. 3월 19~21일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242개 화랑이 참여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막을 한 달여 이상 앞둔 지난 2월 7일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VIP 사전 관람을 포함해 약 5일의 행사 기간에 관람객만 8만여 명, 작품 거래로 인한 매출 규모는 1조 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아트페어지만 걱정에 휩싸인 관계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기에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아트바젤을 운영하는 MCH그룹 측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된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행사 참석자와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있었다"면서 "출품작 수송과 해외 참가자들의 이동에도 어려움을 맞게 됐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 국가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국공립 예술기관이 일제히 활동을 중단했다. 박물관·미술관이 문을 닫았고 공연장은 무기한 폐관을 선언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극장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2월의 관객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분의 1 수준인 734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16년 만의 최저치다.

오래 전부터 기획돼 준비 중이던 내한공연도 줄줄이 취소됐다. 보스턴심포니의 첫 내한공연이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비엔나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로시니 오페라 콘체르탄테 '세비아의 이발사', 루체른 스트링 페스티벌 등이 모조리 취소를 선언했다. 예술의전당이 예정한 3월 공연의 73%가 취소됐고 3월 27일 개막해 4월 5일까지 열릴 계획이던 '통영국제음악제'도 개최 18년 만에 처음으로 행사 자체를 접었다. 대중음악도 마찬가지로 해외 가수의 국내 공연도, 한류스타의 해외공연도 모두 공공 얼어붙었다. 새 음반 출시 후 전 대륙에서 차트 1위를 섭렵하고 있던 방탄소년단(BTS)의 4월 서울콘서트도 취소되고 말았다. 하지만 '신한 영향력'으로 중무장한 BTS의 팬들은 공연 환불금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사흘 만에 4억 원을 모으는 훈훈함을 전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이 이틀간 폐관하고, 일본이 개최할 도쿄올림픽의 위기론도 대두됐다. 중국과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의 참담한 상황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되새기게 한다. 집권당 대표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된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법률 개정과 함께 전체 인구 6,000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격리'는 영어로 '과란틴(quarantine)'이라 쓴다. 그 어원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의 옛 사투리로 '40'을 뜻하는 '과란타(quaranta)'에서 왔다.

“  
예술의 힘은 강하다. 마른 땅, 갈라진 틈을 뚫고도  
싹을 틔워내는 게 예술이다

”



“

질병 또는 전쟁 이후에 상흔만 남는 게 아니다.  
‘면역력’이 더해진다

”

사연은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몸이 검게 타 들어 간다고 해서 흑사병(Black Death)이라 불린 페스트는 1347년에 유럽 전역을 강타했고 90%대의 치사율로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도시국가들이 인접한 유럽의 피해가 막심했다. 해상무역의 거점으로 술한 무역선이 들락거리던 베네치아 공화국은 흑사병을 비롯한 전염병이 두려웠다. 그래서 외국서 들어오는 선원을 항구에 바로 내리게 하지 않고 40일 동안 선박에 ‘격리’ 조치했다. 40일은 예수가 광야에서 금식한 기간에서 따온 것이다. 흑사병은 예수가 물리친 악마와 동급이었다. 이 ‘40일간의 격리’가 오늘날 격리와 검역의 어원이 됐다. 베네치아에는 1423년 유럽 최초의 검역소가 만들어졌다.

### 코로나19 이후 예술은 무엇을 꿈꾸는가

예술은 얼핏 유약해 보여 주춤거리고 물러서는 듯하나 그보다 더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흑사병으로 휘청거리던 유럽은 르네상스 시대를 불러냈다.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사회평론 펴냄)의 저자이자 르네상스 미술 전문가인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예술적 성과가 일순간 후퇴하고 창의력의 원천인 여행이 막히면서 예술가들의 활동도 멈췄지만, 질병 극복을 위해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는 이성주의 시대와 함

03



03  
이수역의 1954년작  
'6.25동란'©가나문화재단

04  
레오나르도다빈치 '모나리자'  
©루브르박물관

게 르네상스가 열렸다”고 말한다. 흑사병을 마주한 중세 유럽인들은 신에게 의지하며 기도를 약 삼아 버텼지만 오히려 성직자들이 몸담고 있던 수도원에서 희생자가 속출하는 등 혼란의 시대가 이어졌다. 병이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몸을 파고든다고 생각한 중세인들은 화살로 처형당했다 살아난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그림을 걸어놓고 치유를 염원하거나 시장 안에도 치유의 기적을 바라며 ‘성모자상’을 그려놓는 등 심리적 의지처를 갈구했다. 물론 그림이 병을 낮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럽을 휩쓴 전염병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거장의 활약에 상당한 자극제가 됐다. 흑사병 시대를 보내며 의학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해부학을 공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 등의 걸작을 남겼다. 그는 “피렌체 도시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고 한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1351)과 해부학을 인물화에 접목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뿐인가. 제1차 세계대전 뒤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혁명은 기능이 강조된 가구와 제품들을 대량생산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기를 바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추상미술의 새로운 움직임이 전 세계로 번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6·25전쟁이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와중에도 예술가들은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다.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의 저자인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먹고 살 길 막막하던 시절에도 김환기·유영국 등의 화가들은 모던아트협회나 신사실과 등을 결성하고 피난지 부산에 모여 작업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물꼬를 틔웠다”면서 “당시 부산 영도에 있던 대한도기(조선경질도기회사 후신)가 작가들에게 일자리를

줘 작업할 원동력을 제공했고, 중군화가단은 화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면서 상당한 전쟁기록화를 남기게 했다”고 이야기한다. 질병 또는 전쟁 이후에 상흔만 남는 게 아니다. ‘면역력’이 더해진다. <남겨진 자들을 위한 미술>(휴머니스트 펴냄)의 저자 우정아 포스텍 교수는 현대미술이 어떻게 상실을 극복하고 사회적 상처까지도 어루만지는지에 주목한다. 우 교수는 “전염병 같은 대재앙이 지나고 난 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길 원한다”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고 누구를 원망해야 할 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답을 얻어 끝없는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 대상에게 쏟아 부으며 이를 삭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중세에는 의존할 대상이 신과 교회 밖에 없었고, 마녀 사냥 등으로 원망을 쏟아냈다. 반면 의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설명만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서서히 회복해 나갈 것이다. 예술의 힘은 강하다. 마른 땅, 갈라진 틈을 뚫고도 싹을 틔워내는 게 예술이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자 온라인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을 지속하게 하는 것도 그 예다. VR과 AR 등을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진화다. 많은 현대 예술가들은 재난을 거치며 잃어버린 것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사회에 대한 믿음 등 소중한 것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 작업한다. 이것을 관객 및 대중과 공유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문화예술의 또 다른 새 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04





## SPECIAL ISSUE

팝업 이슈 2

글. 신보화(경영기획팀)  
자료. KT지속가능경영단

# 함께 힘내요! 문화예술계를 응원합니다

##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無청중 공연 진행

코로나19로 공연 예술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규모 영세 예술단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인과 국민을 위로하려는 기업들의 따뜻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혁신적 결단으로 기업과 예술인들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 KT의 행보는 고무적이다.

01



01. 02  
토요일 오후의 클래식 공연

## 안방에서 즐기는 고품격 공연 실황!

### 올레TV VOD 콘텐츠로 제공

“공연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 연주자들에게 연주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국민들이 우리 연주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실내악 無청중 공연에 참여한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의 말이다. KT는 지난 3월 7일(토)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KT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후의 클래식’ 공연을 無청중 공연으로 진행했다. 관객은 없었지만 올레TV VOD 서비스를 위한 여러 대의 영상 카메라들이 연신 바쁘게 움직였다.

당초 KT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KT체임버홀 오케스트라 공연을 불가피하게 취소했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잇따른 공연 취소와 불투명한 공연 재개 상황으로 타격을 받는 공연 예술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공연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대규모의 연주자가 모여야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아닌, 소규모 실내악 공연을 無청중 공연으로 진행해 연주자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연 실황을 올레TV를 통해 VOD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 또한 안방에서 안심하고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연주자들은 자발적으로 연주비 일부를 기부했으며, 이는 공연 취소로 인해 생계에 위협받는 소규모 예술인 단체 또는 소외계층 예술 꿈나무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 기업·예술가·관람객

### 한마음으로 함께 이겨내요!

KT 홍보실 지속가능경영단 이선주 상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계를 조금이라도 응원하고자 無청중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주자들에게는 연주 기회를, 공연 취소로 아쉬워하는 관객들에게는 올레TV 콘텐츠 제공을 통해 감상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고 기획 취지를 전했다.

‘KT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후의 클래식’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오후 4시에 정기공연을 진행한다. 공연 수익금은 난청 아동을 지원하는 ‘청각장애아 소리찾기’사업에 기부된다. KT는 3월 1주차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無청중 실내악 공연으로 진행한 데 이어 3월 21일 정기 실내악 공연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無청중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2009년 5월, 양천구 목동에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KT 체임버홀’을 개관했다. 올해 11주년을 맞는 KT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현재까지 567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누적관객 10만 명을 달성했다. 

02



“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응원하며, 공연 취소를 아쉬워하는 관객들에게 TV를 통해 공연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 SPECIAL ISSUE

현장 리포트 1

정리, 편집부  
자료, GS칼텍스

현장 리포트는 문화예술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는 국내 주요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타 기업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선보이며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집중 조명합니다.

# 문화예술 힘으로 여는

## GS칼텍스 '마음톡톡'

문화생활 지원부터 스포츠, 해외봉사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진행된 GS칼텍스의 사회공헌 활동 역사는 깊다. 이는 기업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특히 본격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기 전부터 미래 세대를 키우는 데 공을 들였다. 그 가운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접목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은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아이들의 미래

### ● 지역과 세대 아우른 문화예술 프로그램

GS칼텍스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재단을 필두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2012년에는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인 여수의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수시 망마산과 장도 일원에 약 1,100억 원을 투자한 복합문화 예술공간 'GS칼텍스 예술마루'를 건립,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곳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를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소의 계층을 초대하는 객석 나눔활동도 펼쳐나갔다.

GS칼텍스의 지역 친화 문화예술활동은 2013년 메세나 대상 수상을 통해 그 성과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와 협력하여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해소와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취준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GS칼텍스가 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음톡톡'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 ● 평범함 깨트린 기업의 차별화된 행보

GS칼텍스는 음악·미술·무용동작 등 예술 매체가 가지는 치유의 힘에 주목하여, 2013년부터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생활과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마음톡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리사회와 아이들을 생각하는 GS칼텍스의 진심이 녹아 있다. 심리치유는 장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효과 또한 명확히 드러나기 어려운, 기업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분야다. 하지만 GS칼텍스는 마음이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일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렵더라도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자'는 생각에 임직원들도 공감하여 전체의 40% 가까운 임직원들이 8년





“  
 ‘마음톡톡’에 참여한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그림이나 조각작품을 통해 표현하면서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또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정서를 자극하며, 신체와 무용을 통한 움직임의 도구로 활용해 심리정서적 변화와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째 매월 ‘마음톡톡’ 사업을 후원해 오고 있다.  
 ‘마음톡톡’에 참여한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그림이나 조각작품을 통해 표현하면서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또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정서를 자극하며, 신체와 무용을 통한 움직임을 도구로 활용해 심리정서적 변화와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문제 상황을 연기를 통해 드러내면서 갈등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는 ‘마음톡톡’이 주로 사용하는 예술치료 방법론이다.  
 ‘마음톡톡’ 사업은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아동 치유를 시작으로 또래관계 문제 예방 프로그램인 교실힐링, 전남동부지역 위기청소년 치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마음톡톡’에 참여한 아동은 총 18,500여 명에 달한다.

● **사회성 배우는 공간 학교에 주목!**

아이들의 마음 치유 매개로 선택한 것은 사회성 향상이었다. 학령기 아이들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타인을 대하는 법을 배운다. 또래관계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또래관계에서 마음의 문제가 비롯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문제 발단과 해결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떠올랐다. 학교는 예술매체를 활용하여 감정을 자연스레 표현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공감, 협력을 경험하며 건강한 또래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데 최적의 공간인 것이다. 2014년 또래관계 문제 예방을 위해 중학교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실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2015년에는 교육부와 학교생활 위기학생 예술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학교 속으로 들어갔다.  
 제대로 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치료사의 선발, 국내 최고 교수진이 참여한 치료사 임상감독과 슈퍼비전 재교육, 타 매체 치료사 간의 협력과 연구 등을 통해 치료의 핵심인 치료사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하여 예술치유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 **대상범위 넓히는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진단도구를 개발했다. 자체 개발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참여 전·후 설문 진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담임교사(학생 행동변화 평가)와 사업 수행 담당교사(만족도 조사)의 의견도 수렴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마음톡톡'이 학생들의 자아(자아존중감, 자기성장주도성)와 사회적 기술(자기표현, 공감, 협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마음톡톡'은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다년간 축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건부 기소유에·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에게도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활동을 통해 위기 아동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음톡톡'은 지역 사회를 비롯해 교육부,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 우리 사회의 닫힌 문 예술로 열다

'마음톡톡'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예술치료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그들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적 자생조직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9년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GS칼텍스는 2018년 3월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 서울여자대학교 심리건강증진센터와 업무협약을 갖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GS칼텍스는 '마음톡톡'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노래를 통해 마음의 힘과 위로가 되고자 마음톡톡송 캠페인도 진행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마음톡톡송 3편의 음원을 학생, 마음톡톡 치료사, 재능기부자, 임직원 등과 함께 했다. 특히, 2020년에는 학교폭력 문제 예방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GS칼텍스는 '마음톡톡'의 아동심리정서 지원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정을 지속해 문화예술의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 예술 품은 착한 여행의

## 하나투어 'COA프로젝트'

하나투어는 '하나되는 지구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0년 여행업계 최초로 CSR팀(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eam)을 신설해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여행이 필요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지원을 비롯해 관광인재 양성, 다문화 아동지원, 국내외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관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7년 문화관광 전문재단인 '하나투어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적 소외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선순환

## ● 여행이 주는 ‘꿈과 희망’의 선물

기업의 ‘사회공헌’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대부분이 기업 브랜드가 박힌 현수막과 대표와 임직원들의 각종 지역 봉사활동(김장, 급식, 연탄 등)이다. 하나투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또는 노력 봉사 외에 기업이 가진 고유 역량인 여행(관광)을 통해 참 여행 사회공헌을 기획했다. 하나투어의 예상은 적중했다. 산업 발전에 따른 여행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특히 삶의 질이 중시돼 ‘누구나 여행할 권리’가 강조됨에 따라 여행을 통한 꿈과 희망 찾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중 ‘COA프로젝트’는 하나투어가 사회공헌사업을 문화예술영역으로 확장시킨 케이스로, 5년간 1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여행과 전시 기회를 얻었고, 3월 20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8회차 프로젝트 ‘초록과 황금의 나라’ 전시 오픈닝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기념한 ‘아티스트 데이’를 연다. ‘COA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상진 디렉터는 “시작할 땐 여행과 전시만 기대했는데 진행하면서 예상외의 시너지를 얻었다.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융합 컨버전스의 가능성을 계속 키워가고 싶다”고 전했다.

## ● 지역과 예술 협업의 시작

여행, 크게는 문화예술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나투어는 문화관광 유통그룹으로서 문화예술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국내·외 여행을 통한 영감, 교류를 바탕으로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는 예술작품으로 탐방 지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문화예술희망여행 ‘COA프로젝트’다.

2015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희망여행 ‘COA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을 뜻하는 ‘C(Cooperation)’, 공공기관을 뜻하는 ‘O(Organization)’, 예술가를 뜻하는 ‘A(Artists)’의 조합이다. 각 분야가 협력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공익 메시지 전달, 작품을 통한 (현지)여행지의 자연·문화 홍보 등을 목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사진, 일러스트, 공공미술, 영상, 그래피티, 설치미술, 조형,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제주를 비롯한 국내 7개 도시와 해외 7개국 9개 도시를 여행하며, 현지의 아티스트와 교류했다. 이를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각각의 여행 주제에 맞춘 전시를 진행했다. 미술에 국한하지 않고 2018년에는 국악 및 클래식 연주자들과 함께 창작한 음악으로 현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고 이후 정식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원발매를 하는 등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범위를 넓혔나갔다.

## ● 여행과 예술의 폭발적 시너지

사업 초기 기대했던 예술가들의 힐링을 위한 여행지원과 여행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탄생한 작품의 전시 외에 성과와 시너지는 폭발적이었다.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융합 컨버전스의 가능성도 엿보였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100명이 넘는 예술가들과 스태프들이 참여한 ‘COA프로젝트’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은 ‘Artist Day(아티스트 데이)’를 열어 지난 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COA프로젝트’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후원장구라면, 여행 중 문화 예술을 함께 소통하고 나누기 위한 성장 프로젝트인 ‘아트투어’는 음악, 미술, 사진 등을 매개로, 한층 더 성장을 꿈꾸는 계기가 됐다. 해외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연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의 첫 해외공연, 여행기간 동안 현지 지역주민에게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청소년 봉사여행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사회적 가치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의 변화

하나투어가 기대는 성과의 근본은 인식의 변화다. 참여 예술가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심도 있는 작품 세계를 기획하며 편견과 장르의 벽, 가능성의 잣대를 깨뜨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예술작품 영감을 기반으로 한 굿즈(Goods)를 제작해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될 전시와 문화공연 수익금은 다시 예술가들에게 환원해 ‘착한일의 선순환’을 통해 창작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클래식 음악

## 현대악품 '아트앰콘서트'

현대악품은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을 꿈꾸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트앰콘서트'는 대중 친화적인 고품격 살롱 콘서트로, 2009년 시작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클래식 음악과 연주자를 대중 앞에 소개하며 공연예술계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 대중화의 꿈

## ● 누구나 즐기는 쉬운 클래식

클래식 음악은 아직도 대중에게 어려운 장르 중 하나다. 평소 클래식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도 하고, 그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대약품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쉬운 클래식'을 콘셉트로 아트엠콘서트를 기획했다. 대중이 클래식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대중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위해서는 먼저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개최가 필요하다. 아트엠콘서트는 주로 매월 1회 셋째 주 목요일 개최된다. 2009년부터 10여 년간 지속해서 공연을 개최했으니 그 횟수만 따져도 이미 100회를 훌쩍 넘긴다. 공연 프로그램의 구성도 다양하다. 아트엠콘서트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공연의 성격을 띠지만,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 친화적'인 공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통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와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실제로 아트엠콘서트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국악 앙상블, 판소리 명창 등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이 해설자로 나서 차분하고 쉬운 설명으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쉬운 클래식 공연으로서의 아트엠콘서트는 단순히 일회성 공연과 연주자 후원의 형태에 그치지 않고 대중과 클래식 음악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클래식 음악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손영음

## ● 지속적인 후원, 브랜드를 만든다

현대약품은 아트엠콘서트에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를 '지속성'에서 찾는다. 그도 그럴 것이 아트엠콘서트는 지난 2009년 제1회 공연을 개최한 이래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매달 정기공연을 개최해왔다. 기업의 문화공헌 사업으로 100회 이상의 공연 횟수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준은 남다르다. 피아니스트 손영음,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피아니스트 선우예빈 등 유명 아티스트가 아트엠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꾸준히 좋은 아티스트의 공연을 유치하니 관객들의 호응도 높고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계에서 아트엠콘서트가 갖는 위상도 올라갔다. 이제 일찍이 한해 아티스트 섭외가 완료될 만큼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평가도 좋다. 뛰어난 아티스트의 공연을 유치하는 것만큼 뛰어난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현대약품은 2013년부터 '라이징 스타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인 음악가들에게 발돋움의 무대를 제공하고, 미래 거장의 꿈을 지원한다.

## ● '문화예술'이라는 책임감

아트엠콘서트는 전 좌석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객은 메세나 회원과 일반 관객으로 구분되는데, 메세나 회원은 모집 기간에 연회비를 지불한 뒤 아트엠콘서트의 1년 12번 공연 관람 기회와 함께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연회비를 제외한 티켓 판매 수익금은 전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된다. 기업이 관객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관객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다시 문화예술 지원에 사용하는 것. 아트엠콘서트는 이 같은 순환의 과정에서 메세나 활동으로서 완결성을 갖는다.

이미 현대약품은 문화예술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으며 그 성과를 증명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계획하고 있는 공연이 많고, 또 목표도 크다. 올해만 하더라도 1월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의 콰르텟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예정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클래식 음악 대중화에도 힘을 계획이다. 2013년 Youtube, kakaoTV 등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 오픈한 아트엠콘서트 채널을 활발히 이용 중이다. 공연 소식이나 정보는 물론, 아티스트의 연주와 인터뷰 등을 업로드하여 클래식 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예술인 복지 전담 기관이 조직된 것은 2011년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생계형 예술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정과 재단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층 확대된 예술인 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 예술인이 예술로 빛나는 삶

2020 확대되는 예술인 복지 정책

## 다시 보는 예술인 지원 정책!

기존 정책들 중 가장 실용성 높은 지원을 꼽자면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경제적 이유나 건강 등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 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이 낮은 예술인부터 지원하며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들을 위한 창작준비금도 별도로 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그리고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두어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예술인 신문고’,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법률상담·컨설팅’, 개인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50~90%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생활지원이라는 일반적 복지를 넘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 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踏)'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인의 활동 영역 확장과 협업 기회를 마련하는 일도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예술인 대상 융자사업도 시작되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의 특성상 기존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대출(최고 500만 원 이내), 전세자금대출(최고 1억 원 이내) 상품으로 이루어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을 운영하고 있다. 

### 한눈에 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예술인 의료비 지원·예술인 신문고·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법률상담·컨설팅·예술인 심리상담·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50~90%를 지원하는 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踏)·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예술인 자녀돌봄지원



# 2020 이렇게 달라져요!

## 지원 확대, 신청 절차는 간소화

**외형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다.** 더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9년 5,500명에서 2020년 12,000명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으며 각 6,000명씩 지원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축소되며 예술인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을 위해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뿐만 축소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을 75% ⇨ 120%로 확대했다.

**2019년 6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예술인 대상 용자사업도 올해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 2019년 85억 원이었던 예산이 190억 원으로 증가되며, 기존 8,000만 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상한액이 1억으로 확대되었다.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최고 500만 원 이내다.(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300만 원 이내)

**어린 자녀가 있는 예술인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도 마련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이 자녀(0세~5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할 때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특성상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워 종일반 신청이나 우선 입소 대상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예술활동증서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맞벌이 예술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소 1순위, 종일반 신청 대상자가 된다.

**예술인의 법률 안전망도 개선됐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되어 2020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에서 강제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단 내 신설되는 신고·상담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예정되었던 공연, 행사, 전시 등이 대부분 취소되며 예술인들의 수입원은 그야말로 끊긴 상황이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 1.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용자 시행(30억 규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1.20~)\* 국내외 행사,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  
\*1월 20일은 국내 1번 환자 확진일, 감염병 위기 경우 '주의' 단계 발령일자임.

- **용자 한도 상황**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내
- **상환기관 유예** :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 **금리 1% 인하** : 2.2% ⇨ 1.2%  
(부부예술인 중복 신청 가능)

### 2.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2점) 시행

상반기(1.20~6.30) 중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공연·행사·계약이 취소·연기된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가점 2점 부여

### 3. 예술활동증명 공연 실적 인정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연기된 공연·행사 등도 실적으로 인정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기업으로 가는 길

## 하나. 문화로 인사합니다.

법인세 부담도 낮추고,  
기업의 이미지도 살리는 1석 2조의 방법입니다.

### 문화접대비란?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강연 등의 입장권이나 도서 및 간행물, 음반, 영화,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해 접대에 사용하실 경우, 사용액만 큼 해당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에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

### 문화접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문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둘. 문화에 기부 하세요

기부도 하고, 법인세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 기부란?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협회 회원은 누구나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에 기부하는 것은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 지키는 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와 사명

카페나 로드숍 등 상업 매장에서 씬 없이 흘러나오던 최신가요가 잘 들리지 않은 지 오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을 공짜로 공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2018년 8월 부터는 커피전문점, 주점, 헬스클럽 등이 여기에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공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즉, 커피전문점, 주점, 헬스클럽 등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CD, 스트리밍, 디지털 음원을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광화문 실물(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입체 종이 모형(아래) ©스콜라스



### 인격과 재산적 가치의 인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일체의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문학, 음악, 연극과 무용, 미술, 건축물과 설계도서, 사진, 영상저작물, 소프트웨어 등이 모두 저작물에 포함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따로 필요 없다.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점차 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다.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실명을 표시할 권리(실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등의 저작인격권은 물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재산권도 보장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된다.

그런데 창작한 때부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없이도 인정되는 저작권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출원하거나 등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외부에 명확하게 공시되기 때문에 침해가 방지되고 침해 시 적발도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 그 반대로 권리보호에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그나마 요즘은 각 분야별 저작권협회에서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적정한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물로 인정될지 여부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 권리 사수는 작가의 사명

일례로 ‘광화문 모형’ 사건에서는 과연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논란이 됐다. 광화문 등 건축물의 평면설계도를 3차원 입체 퍼즐로 만들어 판매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 후 별도 회사를 설립, 유사한 입체 퍼즐을 판매하자 종전 회사가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광화문 모형은 실제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변형을 가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고, 그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 승례문 모형에도 나타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 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화문 모형 퍼즐은 저작물이 아닐 거라고 체념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 저작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명한 ‘도라산 벽화’ 사건도 마찬가지다. 작가 이반 씨는 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물론 저작물의 소유권도 정부에게 넘겼다. 그러나 3년 뒤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가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다. 이에 작가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정부)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봤지만,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실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작가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 된다”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7년 부산에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다. 해운대구청이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돼 있던 세계적인 조각가 데니스 오펜하임(2011년 작고)의 유작 ‘꽃의 내부’를 철거하고 폐기한 일이다. 만일 저작자인 오펜하임의 유족이 이를 문제 삼았다면 법원은 ‘도라산 벽화’ 사건과 같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크다.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작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권리의 보호범위도 더욱 넓힐 수 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저작자를 결코 알아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





사람들은 일상과 예술을 분리하여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아킬레 카스틸리오니는 달랐다. 제 주변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피며 그 안에서 자신의 디자인 세계를 형성했다. 카스틸리오니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을 향한 그의 애정 어린 시선과 특유의 위트를 오롯이 담아낸다.

# 이탈리아 디자인의 거장, 카스틸리오니 展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이탈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디자이너

아킬레 카스틸리오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인 '거장'이다. 앞서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형 리비오, 피에르 지아코모와 함께 건축사무소를 설립, 본격적인 디자인을 시작한 이래로 총 480여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90여 제품 디자인과 단일 제품 1,500만 개 판매라는 신화를 써 내려갔다. 이탈리아 디자이너에게 최고의 영예나 다름없다는 '황금콤파스'상을 9회나 수상하기도 했다. 카스틸리오니 사후 이탈리아 정부는 그의 모든 오리지널 아트워크와 아카이브를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카스틸리오니는 일상의 관찰에서 얻은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능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추구한 것. 그래서 그의 디자인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행동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카스틸리오니라는 이름과 그 제품이 오늘날까지 회자되며 디자인의 정석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바로 '사람'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중요했으니.

## 평범하지만 혁신적인, 새롭지만 익숙한

카스틸리오니의 작품은 실용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독특하면서도 익숙한 디자인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아르코 플로어 램프다. 이는 거실에서 무언가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고안된 디자인으로, 형 피에르 지아코모 카스틸리오니와 함께 작업했다. 조명은 천장에 고정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아르코 플로어 램프는 천장 조명과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도 이동이 가능하다.

메자드로 스톨 역시 카스틸리오니 형제가 서로 다른 종류의 기능적 요소들을 합쳐 장난스럽게 만들어낸 가정용 의자다. 기존의 사물을 결합하여 의외성을 실험하는 다다이즘을 연상시킨다.

셀라 스톨의 '셀라'는 '말안장'을 의미한다. 당시 집 전화기 대부분이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하려면 선채로 짧게 해야만 했다. 형제는 이 스톨을 통화를 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의자'로 디자인했다.

그리고 룬피트라타 스위치는 카스틸리오니의 디자인 철학인 'Anonymous Design'의 개념이 가장 함축적으로 녹아 있는 작품이다. 이 평범한 형태의 스위치를 누가 처음으로 디자인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사실 카스틸리오니 형제의 대표작이다. 스위치는 조명의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전선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도 그 모양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엄지손가락 끝을 자연스럽게 빈 공간으로 밀어 넣으면 스위치가 켜진다. 카스틸리오니는 가장 자랑스러운 자신의 제품으로 이 스위치를 꼽기도 했다.

01  
ARCO lamp\_courtesy of  
Achille Castiglioni Foundation

01





02



03

04



02  
Mezzadro, 1957 designed by Achille, Pier Giacomo Castiglioni (©Zanotta S.p.A)


03  
Sella, 1957 designed by Achille, Pier Giacomo Castiglioni (©Zanotta S.p.A)

04  
롬피트라타 스위치(photo\_MessMassage)

### 서울에서 만나는 이탈리아의 거장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오는 4월까지 카스틸리오니 100주년 기념 전시를 개최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아킬레 카스틸리오니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시아 최초, 대규모로 기획돼 더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 콜렉티브 박현주 대표 겸 교수(홍익대학교)와 한국 전시 총감독을 담당한 김주연 교수(홍익대학교) 지휘 아래, 카스틸리오니의 제자이자 세계적 디자이너 듀오로 손꼽히는 이코 밀리오레(Ico Migliore)와 마라 세르베토(Mara Servetto)가 전시 기획과 공간 디자인에 참여했다. 이탈리아 주요 건축가 및 엄선된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과 함께 카스틸리오니에 대한 존경을 담아 작업한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한정 아트웍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카스틸리오니의 감성을 집중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디자인계 전문가와 카스틸리오니의 생각법을 다루는 강연회와 카피라이터 최인아의 특별 강의 프로그램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키즈 아틀리에 프로그램, 김충재 디자이너의 오디오 가이드, 카스틸리오니 다큐멘터리 상영까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인 아트마이닝 리빙아트 제안전 <카스틸리오니×5한국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에서는 카스틸리오니 디자인 제품과 조화를 이루는 아티스트 5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별도 휴관 계획은 없으며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스물의 열정

## 예술의 봄 꽃 피우다

### 최고의 무대 향한 올곧은 신념과 고집

“지난 20년간 1등 공연장의 명성을 쌓아왔잖아요. 새로운 20년 역사의 토대를 쌓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우섭 대표는 1993년 (주)럭키에 입사해 1995년부터 LG연암문화재단에 몸담아온 LG맨으로, 2016년부터 LG상남도서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말 부임했다. 지식 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서비스 중심의 공간에서 대표적인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으로 옮겨온 것이다.

“두 공간이 본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을 과감히 시도해 좋은 성과를 이뤄 왔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LG아트센터는 동시대 꼭 봐야 할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 최고의 시설을 갖췄고, 국내외 훌륭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며 문화예술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왔다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타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싶고, 그런 조직 문화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는 LG아트센터가 공연계에서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게 된 비결로 ‘일관성’을 꼽았다. 상위기관인 연암문화재단에서 건립 당시부터 역사와 발전 과정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다.

“회담 구본무 선대회장님께서 개관 당시 주문하신 ‘홍행에 연연하지 말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을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하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잘 지켜온 것이 성공 비결이 아닐까요. 적자가 불가피한 공연장 사정을 LG연암문화재

### 심우섭

### LG아트센터

### 대표



'믿고 보는 공연장' LG아트센터가 20주년을 맞았다. 2000년 개관 이래 세계 공연계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국내 최초의 시즌제·패키지 티켓 도입, 초대권 없는 티켓 정책 등 혁신적인 경영으로 국내 공연 문화를 선도해온 것이 LG아트센터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도 13년 연속으로 공연장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국내 대표 국립 공연장들을 제친 것이다. 지금 LG아트센터는 2022년 마곡 이전을 앞두고 있다. 20년 역사의 변곡점에 직면해 지난해 말 부임한 심우섭 대표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

자연 생태 환경 속에서 공연장과 과학관이 함께 공존하며 융·복합적인 시도들이 이뤄진다면, 문화적 소양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동시에 발휘되는 균형 잡힌 미래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

단이 잘 이해해 주셔서 가능했죠. 좋은 공연은 많지만 그 색깔이나 품질의 일관성을 지키는 공연장은 많지 않습니다. LG아트센터는 개관 때 도입한 시즌제, 패키지제도, 초대권 없는 정책뿐 아니라 컨템포러리 중심의 프로그래밍과 고객 서비스에서도 일관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면들에 고객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순수예술 공연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LG아트센터가 연간 비용의 약 50%를 티켓 수입과 대관료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충성도 높은 관객의 유료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프로그래밍 기조는 세계지향, 미래지향입니다. 피나 바우쉬, 로베르 르빠주, 매튜 본 등 세계 공연계의 이목이 쏠린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국내 예술인들과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제공해 왔죠. 동시대 공연을 시차 없이 국내 무대에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물리적 거리는 고려하지 않아요. 작년에 소개한 <로마 비극>이 우리 색깔을 잘 보여주는 공연이었죠. 인터미션 없는 6시간 공연 중 관객들이 무대 위를 자유롭게 오가고, 사진을 찍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파격적인 무대였거든요. 국내 작품들도 꾸준히 제작해 왔는데, 양정웅 연출의 <페르퀀트>와 이 사람의 <역척가>, 서재형 연출의 <더 코러스오이디푸스>는 해외에서도 호평 받았습니니다.”

### 마곡에 펼쳐질 지역 친화적 공간

2022년 마곡 서울식물원 초입에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 설계로 지어지는 새 공연장은 그 자체로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1,000석 규모의 역삼동 공연장에 비해 마곡에는 1,300석 규모의 대극장과 가변형 소극장까지 갖추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소개한다. LG사이언스홀도 함께 자리한 만큼 ‘예술과 과학의 공존’이 콘셉트라고.

“마곡으로 가도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 친밀하게 항상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지금껏 저희가 국내 공연 문화를 선도해 왔다면, 다음 과제는 더 많은 관객들을 포용할 공간을 만들고, 팬들이 젊은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자연 생태 환경 속에서 공연장과 과학관이 함께 공존하며 융·복합적인 시도들이 이뤄진다면, 문화적 소양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동시에 발휘되는 균형 잡힌 미래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접근성에 대한 고민도 있을 터. 하지만 그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푹심 있게 밀어붙이면 2~3년 안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G아트센터 외관. 2022년 마곡으로 이관 예정이다.



“새 공연장에서도 저희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개한다면 저희를 믿고 찾아주는 기존 관객들 중 상당수는 계속 방문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 서남권 지역 관객들도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있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서남권의 새로운 관객들을 개발해 나가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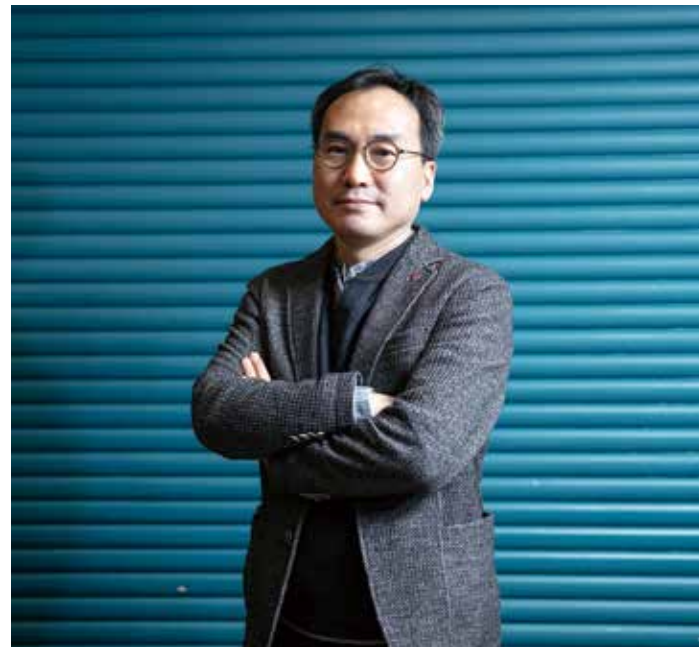
예술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LG아트센터는 지난 20년간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공연으로 승부해 왔다면, 이제 시대적 과제인 극장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LG아트센터가 우리 공연문화를 한층 높여보자는 취지로 건립됐다면, 이제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문화를 뿌리내리는 게 관건이 됐거든요. 극장도 2개가 되니 잘 믹스해가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이 우리 콘텐츠를 통해 공연 문화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세나 활동일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미래 관객을 위한 예술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우리 공연 뿐 아니라 대학로 공연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나눔티켓을 배포하고, 작품에 대한 해설과 소감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사각지대 없는 예술 향유

문화계 종사자로서는 드물게 공대 출신인 그는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다. 클라라 하스킬과 글렌 굴드의 바흐나 모차르트 피아노곡 연주를 좋아하지만 최백호, 헤이이도 LP판으로 즐겨 듣던 세대란다. 음악은 개인적인 취미였을 뿐이지만, 재단의 메세나 관련 업무와 메세나협회 A&B포럼 대표 간사로 활동하면서 새롭게 눈을 떴다. 바로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다.

“개인적으로 스쿨 콘서트, 나눔티켓 등 공연 예술을 활용한 메세나 업무를 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저소득층 뿐 아니라 학생, 군인, 공연장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문화 소외계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그들이 보다 쉽게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 되어야겠죠.”  
지금 문화예술계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지원이 제한되고



기업 후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추세다. 선구적인 메세나 기업인 LG그룹은 2000년 LG아트센터 건립 이래 매년 상당한 적자를 감당하고 있지만, 메세나 활동이 결코 일방적인 사회공헌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바로 고객과의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기업은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고객과 소통해야 하는데,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광고에서 문화예술 소재를 활용하죠. 단순한 문화 마케팅을 넘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조직 문화를 바꿔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남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문화예술을 활용할 수 있죠.”

메세나 대선배로서 후배 기업들에 대한 조언도 부탁했다. ‘소외된 곳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미술, 음악, 공연과 같은 예술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곳을 살펴보면 기업의 색깔과 잘 맞는 아이টে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죠. 기업의 후원을 통해 소외된 분야가 수혜를 입으면, 그 수혜는 기업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메세나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는 않아요. 작게라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이 결실을 맺을 겁니다.”



# 100년 축제의 정수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er Festspiele)

02 03



01

### 모차르트 기리며 시작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오스트리아의 서부에 위치한 잘츠부르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고향이다. 이 작은 도시와 모차르트는 꽤 재미있는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대주교였던 히에로니무스 폰 콜로레도에게 종속된 음악가였다.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던 모차르트도 어쩔 수 없었다. 당시의 지배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와 같이 고용된 음악가로 일했다. 결국 모차르트는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해주지 않던 잘츠부르크에서의 생활을 끝낸 후 화려한 음악의 도시, 빈으로 거처를 옮겨 남은 음악인생을 보냈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가 영면하고 나서야 모차르테움 재단을 설립해 그를 기리기 시작했다. 1877년부터 1910년까지 총 8회에 걸쳐 모차르트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Salzburger Musikfest)를 개최한 이곳은 이후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 등 다른 예술 장르도 함께 여는 종합 예술 성격의 잘츠부르크 축제극장 기구로 재출범했다. 이 단체는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제인 카를 1세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획기적인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1920년 8월 22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역사가 시작됐다.

### 전통이 된 유일한 무대, 호프만슈탈의 <예터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페라, 음악회, 연극,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등 네 분야를 골고루 모은 종합 예술 축제다. 각 분야마다 매년 다른 주제를 선보이는 것이 일종의 규칙같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무려 100년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작품이 있다. 바로 휴고 폰 호프만슈탈의

**202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일시**  
5월 29일~6월 1일  
(성령강림절 페스티벌)  
7월 17일~8월 31일

**장소**  
잘츠부르크 대성당 외  
약 15곳

**홈페이지**  
www.  
salzburgerfestspiele.at

연극 <에더만>이 그 주인공이다. 우리말로 ‘모든 사람’, ‘누구나’로 번역되는 이 작품은 ‘부자를 죽이는 놀이’라는 부제가 붙은 연극이다. 1911년 독일 베를린에서 초연되었고, 이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남았다.

<에더만>은 반드시 축제의 첫 날, 잘츠부르크 대성당 앞 계단에서 공연된다. 이 무대 또한 전통으로 이어져 매년 개막일 오후 5시 또는 밤 9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밤 9시에 막이 오르며 현재 전석 매진된 상태다.

**메세나의 이상적 모델**


지난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199개의 공연이 43일 동안 잘츠부르크의 16곳에서 열렸다. 42편의 오페라, 55편의 연극, 81회의 음악회와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20만 명이 티켓을 구매해 잘츠부르크에 다녀갔다. 티켓의 가격은 5유로(한화 약 6천5백 원)부터 105유로(한화 약 13만5천 원) 선이다.

2018년 주최 측은 후년도 예산으로 900억 원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기업, 문화, 정책의 이상적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장기 침체 중인 유럽 경기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범국가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춘 셈이다. 이곳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우디, 지멘스, 롤렉스, 네슬레 등이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객들의 여행 소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입원이다. 특히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에는 숙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여러모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스트리아에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100주년 맞은 올해 하이라이트 미리보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성령 강림절 시즌과 여름 시즌 총 2회에 나눠 열린다. 성령 강림절 시즌은 일종의 프리뷰 페스티벌이라고 봐도 좋다. 올해의 성령 강림절 시즌은 5월 29일~6월 1일, 본 페스티벌인 여름 시즌은 7월 17일~8월 30일에 잘츠부르크 곳곳에서 개최된다. 여름 시즌의 경우 총 44일간 15개 공연장에서 222편의 오페라, 연극, 음악회가 열린다.

올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무대는 어느 때 보다 특별하다. 개최 100주년과 함께 베토벤 탄생 250주년도 기념한다. 덕분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독주회인 ‘베토벤 사이클’이 총 9회에 걸쳐 열린다.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빗이 이 어려운 연주에 도전장을 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올해의 오프닝 무대에 설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논의 중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다. 이밖에도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시프,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반게로프, 페스티벌의 메인 오케스트라인 빈필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한 세기를 이끈 저명한 페스티벌을 축하한다. 



01 잘츠부르크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연극 <에더만>이 상영 중인 모습

02 잘츠부르크의 영웅과 같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03 광장에서 지멘스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지멘스의 밤 페스티벌

04 2018년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 열린 교회 음악회의 한 장면



04

# 광화문 기품 담은 클래식 무대 <광화문 음악회>

## 현대해상 & 씨더불어배움



지난 1월 16일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광화문 인근 지역민 및 직장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의 춤, 왈츠’를 주제로 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8명의 연주자가 클래식 작곡가의 왈츠곡을 모아 연주한 새해 첫 번째 음악회이자 ‘제29회 광화문 음악회’다. 이날 연주한 ‘칼레이도스코프 뮤직 소사이어티’ 팀은 이지연 플루티스트의 작곡 가별 왈츠에 대한 특성 및 깊이 있는 해석으로 듣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 심관섭, 임재홍 2명의 피아니스트는 열정적으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왈츠를 연탄곡으로 연주하여 400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광화문 음악회’는 광화문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무료로 제공받아 예술인에게는 공연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 관객에게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소개하며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씨더불어배움과 함께 진행해 온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7년 9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3주년을 맞이한 광화문 음악회는 매월 1회 세 번째 목요일 무료 정기공연을 열어 클래식, 재즈, 가곡, 국악 등 다채로운 음악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악기와 곡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곁들여 관객이 쉽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연에도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부터 노부부, 직장동료 등 다양한 형태의 관객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한 관객은 “지방으로 이사 갔지만 수준 높은 광화문 음악회에 반해 매월 이곳을 찾는다”며 팬심을 드러냈다.

예술 협력 파트너인 (씨더불어배움 배경임 국장은 “광화문 음악회는 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이 모여 관심으로 만들어진 작지만 따뜻한 문화나눔이다”라고 소개하며 “연주자 입장에서든 관객의 열정적인 눈빛과 표정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공연하는 것이 큰 무대와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광화문 음악회 무대에 오른 연주자는 약 170여 명으로, 누적 관람객은 약 8천7백여 명에 이른다. 현대해상은 음악을 매개로 한 진정성 있는 메세나 활동을 이어가며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관객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광화문 음악회

#### 일시

매달 세 번째 목요일  
19:30~20:30

#### 장소

종교교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48)

\*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일시 중단  
- 공연에 대한 공지 확인 후 참석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배움 홈페이지 <http://thebaeum.or.kr>  
\* 문의 02-744-8890

회원사 뉴스

# 사진예술, 살아있는 배움 현장

## 2020 한미사진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전문적인 사진예술 교육을 실현하고 사진문화예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미사진미술관은 2020년도 한미 사진아카데미 신규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2년에 신설한 한미사진아카데미는 사진에 입문하는 과정부터 작품 리뷰, 포트폴리오 제작과 전시에 이르는 사진예술의 전반적 내용을 과정별로 세부 커리큘럼에 의거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Camera Craft(기초)는 사진의 기본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진의 다양한 활용법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으로 사진의 즐거움과 예술적 가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Camera Work(중급)는 작업에 대한 주제 및 기술적 표현관계에 대한 이해와 작업과정의 표현능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일상과 사고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창의적 작품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 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작가로서의 입문을 준비하는 과정인 Camera Master(고급)는 현대사진 경향에 대한 이해와 촬영 시 주요사항들을 점검하며 포트폴리오 제작에 대한 능력을 습득한다. 또한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수료전을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배운다.

**문의**  
02-722-1315, 02-418-1315

**장소**  
MoPS(서울시 중로구 삼청로 11길 11)



# 봄에 만나는 베토벤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음악을 통한 우정'을 모토로 매년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는다.



©HaJiYoung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로, 위대한 음악가의 탄생에 경의를 표하는 음악계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도 이 행렬에 동참하며 베토벤의 명작을 소개한다. 그리하여 이번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주제는 '환희의 송가(Ode to Joy)'다. 재해와 고통, 질병, 전쟁 등 온갖 비극에 당면해 있는 오늘날 인류를 위한 노래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이미 2009년 'B4+'를 주제로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전곡을 선보인 바 있으며 2018년에는 피아노 트리오 전곡을 연주했다. 이 밖에도 지난 14년간 베토벤의 많은 실내악 작품을 연주해왔다. 올해는 기존에 자주 접했던 실내악이 아닌 또 다른 영역에 위치한 베토벤의 작품 15곡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베토벤 실내악 레퍼토리를 탐구하기 위한 시도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약 60인의 연주자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그는 올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2020년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15주년이자 전 세계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전하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칭송받는 베토벤에게 모든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년 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가였던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와 함께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길 바란다.

**기간**  
2020.5.13.(수)~2020.5.24(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외

# 절대적 믿음, 종교와 미신 사이

배찬호 사진전 <서양의 눈 Occident's Eye>

국내의 현대미술 현장에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배찬호의 신작전 <서양의 눈>이 한미사진미술관 삼청별관(이하 MoPS)에서 열린다. 배찬호는 서양 사회 속에서 동양 남자로서 느낀 '소외'를 사진으로 시각화하는 작가다. 유럽의 중세 및 근대시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상황 속 백인 여성으로 등장함으로써 서구 문명이 행한 차별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타자의 소외감 이해하기에서 출발해 점차 문화적 우월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던 그의 작품 세계는 이번 신작 <서양의 눈>에서 확장된다. MoPS에서 처음 선보이는 <서양의 눈> 작업은 무엇보다 종교와 신화 그리고 미신의 관계에 집중한다. 배찬호는 그간의 작업을 통해 타자와 소수자를 구분 짓고 배척하는 이유를 인간의 '절대적 믿음'에서 찾았다. 주류 문화 속 구성원의 믿음은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소수자의 믿음은 주류의 합리주의에 의거해 미신으로 정의된다. 이에 작가는 이집트 신화가 반영된 고대 벽화(사자의 서), 서양의 절대적 믿음으로 배척당한 타자이자 마녀(마녀사냥), 그리고 토테미즘의 상징물인 바위와 나무를 이용해 제작한 작업을 종교적 재단의 형식으로 전시장에 설치했다. 그리고 각 재단 안에 믿음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충돌시키면서 절대적 믿음이 만들어내는 절대주의적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계 '비틀기'를 시도한다. 특히 <사자의 서>의 한 장면을 인용한 작업에서 망자를 심판하는 오시리스의 절대 권력은 해체되는데, 이때 관람객은 오시리스가 아닌 거울 속에 비친 타자, 즉 서구 비주류인 작가를 마주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거울 속 얼굴에서 절대성은 허물어지고 우리 안에 내재된 배타성 또한 되돌아보게 된다.

더불어 한미사진미술관은 배찬호의 작업을 총망라한 사진집 <의상 속 존재 EXISTING IN COSTUME>를 발간한다. 이번 신작 <서양의 눈>을 별첨 부록으로 수록했으며, 前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이자 미술평론가인 김홍희와, 지난 20년간 <Hotshoe> 매거진을 비롯한 해외 우수 포토매거진의 에디터를 지낸 빌 쿠벤호벤의 글이 더해져 배찬호 작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중입니다.  
홈페이지(www.photomuseum.or.kr) 공지 확인 후 방문해 주십시오.



배찬호 사진전 포스터



마녀사냥©배찬호

**기간**

2020.2.28(금)~2020.5.13(수)

**장소**

MoPS(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11)

March  
3월

**발렌티나 리시차 피아노 리사이틀 <걱정과 환희>**

2020.3.22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기교를 뛰어넘은 연주로 매 순간 청중을 사로잡는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리시차의 내한 리사이틀이 열린다. 발렌티나 리시차는 카네기홀, 에버리 피셔 홀 등에서 로린 마젤과 함께한 Orchestra Sinfonica Brasileira, 로테르담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까지 세계 유수의 지휘자 및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특히 2012년 영국 로열 알버트 홀에서 가진 리사이틀은 온라인을 통해 청중이 선정한 곡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끊임없이 베토벤의 음악에 관심을 보여 온 발렌티나는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한국 무대에서 지금까지 농축해온 자신만의 베토벤을 풀어놓을 것이다.

**KBS교향악단 제752회 정기연주회**

2020.3.26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0년 KBS교향악단은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이자 현존 세계 최고의 지휘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압 판 츠베덴을 세 번 초청한다. 3월 정기연주회는 압 판 츠베덴의 첫 번째 무대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자 그가 사망한 3월을 맞아 베토벤을 닮고 싶어 했던 브람스의 첫 교향곡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10월, 11월 다시 KBS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며 세 번에 걸쳐 브람스 교향곡 1~4번 전곡을 모두 연주할 계획이다. 또한,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가 브람스의 정신적 지주 슈만 만년의 작품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129>를 무대에 올린다. 베토벤과 슈만의 동경, 브람스 심연으로부터 세계인 것이다.

April  
4월

**밀로 라우 연출 <반복-연극의 역사>**

2020.4.1~3 / LG아트센터



밀로 라우는 현재 유럽 연극계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급진적이라 평가받는 연출가로, 역사적·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다루면서 무대를 실험과 탐사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연극 <반복-연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진다. 영화적 기법과 공연 장면을 동시에 활용하거나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사건을 다각도로 재연하면서 우리 시대의 연극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성찰한다. 초연 후 아비뇽, 에든버러, 파리가을축제 등 유럽의 굵직한 페스티벌에 모두 초청되며 다큐멘터리 씨어터 돌풍을 일으킨 밀로 라우의 작품을 만나보자.

**2020 금호라이징스타 시리즈 : 피아니스트 이혁 독주회**

2020.4.2 / 금호아트홀 연세

2012 금호영재콘서트에서 번뜩이는 음악성을 드러내며 피아노 영재로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 이혁이 청년이 되어 돌아왔다. 이혁은 일찍이 쇼팽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우승, 2016 파데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 2018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라는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이었던 피아니스트 엘리사 비르살라제는 "3차 예선까지 내 관점에서 최고 경연자는 이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혁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스트라빈스키, 리스트,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리스트의 곡을 연주하며 자신의 반짝이는 음악 세계를 선보일 것이다.



**2020 금호라이징스타 시리즈 :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독주회**

2020.4.9 / 금호아트홀 연세

2019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만 19세의 나이로 동메달을 거머쥐며 놀라운 소식을 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피아니스트 박영성과 무대에 오른다. 김동현은 2012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하여, 금호영아티스트, 금호악기시리즈 등 꾸준히 금호 무대에서 음악적 성장을 증명해왔다. 이번에도 한층 더 성숙해진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 오보이스트 프랑수아 플뢰,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스트로세 듀오 연주회**

2020.4.16 / 금호아트홀 연세

유려한 음색과 폭넓은 해석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오보이스트로 손꼽히는 프랑수아 플뢰와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의 단골 연주자로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스트로세가 듀오 무대를 선보인다. 그들은 4월 발매 예정인 'Bienvenue en France'(워너 레이블) 앨범을 기념하여, 생상스, 풀랑크, 상강, 드뷔시 등 프랑수아 오보에 레퍼토리의 정수를 펼친다.





**모네에서 세잔까지 :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인상파와 후기인상파 걸작展**

~2020.4.19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세계 최대 박물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 컬렉션에서 107점의 명화를 엄선했다. 전시는 이들 작품을 통해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의 한 갈래인 인상주의와 작가들이 현대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전시에서는 인상파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최고 걸작으로 알려진 수련 연작 중 그가 시력을 잃기 전에 완성한 '수련 연못(Pond with Water Lilies, 1907)'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밖에도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폴 고갱, 폴 세잔 등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2020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 The Art of Strings**

2020.5.7 / 금호아트홀 연세  
 2020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The Art of Strings'를 주제로 두 번째 무대를 꾸민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핫한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닝과 함께 오르는 이번 무대에서는 악기의 테크닉과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매우 비르투오조적인 라벨과 코다이의 작품 및 바흐의 인벤션과 비틀만의 소품들로 더 넓은 스펙트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두 연주자의 아슬아슬한 줄다리를 즐겨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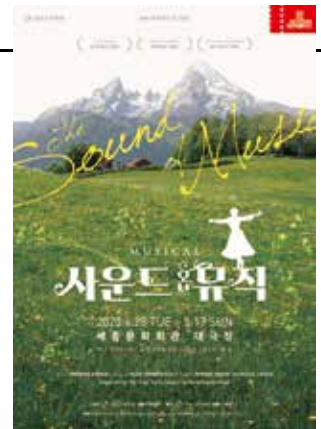
**베토벤 애디트 : 로열 노던 시포니아**

2020.5.10~11 / 롯데콘서트홀  
 롯데콘서트홀의 두 번째 '베토벤 애디트' 시리즈다.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라르스 포그트와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로열 노던 시포니아는 꾸준히 베토벤의 음악을 탐구해왔다. 베토벤 250주년 기념 한국을 찾은 그들은 거장을 기리기 위해 <에그몬트> 전곡을 들려준다. 여기에 더해 <피아노 협주곡 3번>, <코리올란 서곡>, <삼중 협주곡> 등 굵직한 레퍼토리를 통해 베토벤



**오르간 시리즈 : 스콧 브라더스 듀오**

2020.4.23 / 롯데콘서트홀  
 국내 클래식 콘서트홀 가운데 유일하게 파이프 오르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콘서트홀이 2020년 더욱 특별한 오르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르간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은 영국의 스콧 브라더스 듀오다. 조나단 스콧과 톰 스콧 형제로 구성된 스콧 브라더스 듀오는 파이프 오르간뿐만 아니라 피아노, 하모니움 등 다양한 건반 악기의 조합으로 연주한다. 특히 파이프 오르간의 매력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겠다는 사명감 아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길망의 <파스토랄레 Op 26>, 조나단 스콧이 직접 편곡한 구노의 <명상>과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등 파이프 오르간의 음색을 덧입은 색다른 음악들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2020.4.28~5.17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나치의 지배를 피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폰 트랩 가족의 실화를 담고 있다. 1957년 10월 뉴 헤이븐 초연 이후 11월 16일 브로드웨이랜드폰테인 극장 무대에 오르며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1960년 토니상의 상을 휩쓸고 1965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는 등 지금까지도 전 세계 관객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뮤지컬로 자리매김했다. 오는 4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그 고전의 감동을 서울시뮤지컬단의 열연으로 확인할 수 있다.

May  
5월

음악에 담긴 송고한 아름다움을 재현한다. 포그트가 지휘와 피아노 협연을 동시에 맡고, 소프라노 임선혜가 오페라 <피델리오> 중 아리아를 연주하며, 바이올리니스트 안트에 바이타스, 첼리스트 탄야 테츨라프 등 실력과 연주자들이 가세한다.

**오페라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2020.5.12~17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시오페라단이 로시니의 대표작 <세비야의 이발사> 무대를 꾸민다.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전성시대를 여는 작품으로, 바람기 많은 젊은 귀족 알마비바 백작과 아름다운 여인 로지나의 결혼을 위한 마을의 이발사이자 만능 재주꾼 피가로의 활약상을 유쾌하게 담았다. 밝으면서도 빠른 내용 전개와 아름다운 선율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오페라다.



**에이프만 발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니나>**

2020.5.13~17 / LG아트센터  
 러시아의 국민 안무가 보리스 에이프만이 러시아 문학의 정수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톨스

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로 관객들을 만난다. 에이프만은 1977년 자신의 발레단을 창단하고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등의 고전을 드라마틱 발레로 과감하게 재해석하며 찬사를 받아왔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1995년 초연된 에이프만의 대표작을 2013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원작의 거대한 화두를 발레 작품으로 압축하면서도 강렬한 문학성을 분출해냈다. 또한, 2006년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상 수상작인 <안나 카레니나>는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의 폭풍 같은 사랑의 감정과 열정, 고통을 극적으로 표현해낸다. 에이프만과 그의 발레단은 러시아 문학에 담긴 깊은 철학과 감정을 춤과 선으로 무대 위에 고스란히 되살리며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크리스탈 파이트 <검찰관>**

2020.5.22~23 / LG아트센터  
 '21세기 최고의 무용극'이라고 극찬 받은 <베트로렌하이트> 성공에 이어 조너선 영과 다시 한번 손을 잡은 작품이다. 러시아 소도시를 방문한 하급 관리자가 검찰관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벌이는 소동을 그린다. 목소리, 조명과 음향, 세트, 움직임 등의 조화가 정교하고 절묘하다.







(가나다순)

**회장사**

일신방직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주)노루홀딩스  
동성코퍼레이션  
벽산엔지니어링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삼양홀딩스  
설원량문화재단  
세아제강  
(주)유니드  
중근당  
코오롱그룹  
크라온-해태제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풍산그룹  
한화갤러리아  
현대해상화재보험  
효성  
한미약품

**이사사**

고려당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두산  
디자인하우스  
사라  
(주)신세계  
이건홀딩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성자동차  
LG연암문화재단  
SK SUPEX추구협의회 Social Value위원회

**회원사**

가니아트갤러리  
강원랜드  
경남스틸  
공간그룹  
광주요  
금융투자협회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금호폴리켄  
금호피앤비화학  
금호홀딩스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나라삼양감속기  
나라통상(주)  
(주)나우피플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  
네이버문화재단

네이처스웨밀리코리아  
(주)노루비케미칼  
(주)노루오토코팅  
(주)노루페인트  
녹십자  
뉴서울 컨트리클럽  
뉴스킨 코리아(주)  
뉴욕제과  
(주)다진  
대림산업  
대성산업가스  
대신증권  
대우건설  
(주)대창스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제분  
(주)대한항공  
더페이스샵코리아  
(주)돌살나이  
동서식품  
동아제약  
동아출판  
동일FnG(주)  
두산건설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로알&컴퍼니(주)  
롯데렌터카  
롯데문화재단  
롯데백화점  
(주)마케팅큐레이터 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모나미  
문화유산국민신탁  
미디어월  
법률사무소 C&B  
베이글카페  
보령제약(주)  
본아이에프(주)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브레드가든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삼양인터내셔널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주)삼화에프앤에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기획  
서울옥션  
(주)성도GL  
(주)세원특수금속  
세일ENS  
세화예술문화재단  
소니코리아  
(재)송원문화재단  
(주)스파크인터내셔널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HDT(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시아나항공  
(주)아이피케이  
(주)에스원  
영앤임섬 주식회사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올림푸스한국(주)  
(주)우진  
우진건설(주)  
원마운트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원포시스(주)  
유안타증권  
유중아트센터  
이건산업  
인산죽염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릿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일진문화재단  
재단법인 송강재단  
제우인베스트먼트(주)  
제일기획  
조선호텔  
종이문화재단  
(주)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지앤히어링코리아  
청림출판  
컨슈머타임스  
케이옥션  
(주)코리아 투모로우  
(주)코스모스악기  
코카콜라음료  
(주)크레디아프로젝트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태연건설  
퍼시스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  
포스코ICT  
필룩스  
(사)한국FPSB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무역협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암웨이  
한국전력공사  
한맥도시개발  
한미회계법인  
한빛문화재단  
한세실업  
(주)한진  
(주)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주)호텔롯데  
(주)호텔롯데 면세점  
호텔신라  
홈플러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휠라코리아  
휴맥스  
BMW코리아(주)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CJ문화재단  
DI동일  
GA KOREA smart city & resort  
GS칼텍스 예술마루  
(주)HK  
HSD엔진  
IBK기업은행  
(재)KBS교향악단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T  
KT&G  
LG생활건강  
LG전자  
LG화학  
LH  
OCI  
POSCO  
SK건설  
SK네트웍스  
SK증권  
SK텔레콤  
SK해운  
SM삼환기업  
TCC스틸

감사드립니다  
(2019.11.28~2020.2.29)

**NOROO** 노루페인트

**HYOSUNG**

**K  
O R E A  
T O M O R  
R O W**

**K Auction**

**MCG** Marketing Curator Group  
비즈니스 문제해결을 위한  
마케팅 전문가 그룹

**ILJIN**  
CULTURE FOUNDATION

**SAMSUNG**

**동아제약**

**롯데문화재단**

**LASER & SYSTEMS**

**空間  
SPACE  
GROUP**

**W&A** WILMOTTE & ASSOCIÉS ARCHITECTES

**NOROO**  
노루비케미칼

**한화손해보험**

**월드리츠개발 주식회사**  
World REITs Development

**OCI**

**FILA**

**K I T 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